



전문가 추천 서평

2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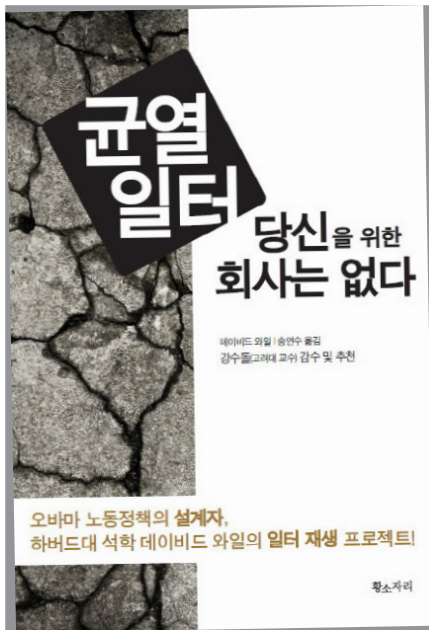
2016년 4월 6일

발행처 국회도서관

발행인 이은철

편집인 이미경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 원 제 : The Fissured Workplace
- 저 자 : 데이비드 와이일(David Weil)(미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행정관)
- 역 자 : 송연수
- 출 판 사 : 황소자리
- 출 판 일 : 2015. 10.
- 쪽 수 : 527

목 차

추천의 말

- 제1부 현대 일터의 풍경
- 1장 균열일터가 몰고온 파장
- 2장 균열 이전 일터의 고용
- 3장 왜 균열인가?
- 4장 균열일터의 임금 결정

제2부 균열일터의 형태와 그 영향

- 5장 하청
- 6장 균열과 프랜차이즈
- 7장 공급체인과 균열일터

제3부 균열일터 개선 방안

- 8장 사회적 책무 제고
- 9장 새로운 법 시행 접근
- 10장 깨진 유리창 고치기
- 11장 균열경제
- 12장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옮긴이의 말

- 주석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서평자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박사수로,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변화하는 일터의 균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청년실업과 취업을 둘러싼 문제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같은 노동시장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데이비드 와이일의 『균열일터』는 우리 노동시장을 진단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만하다. 저자는 노동조건, 임금, 고용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균열조직의 영향부터 자세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대기업 시대는 끝났으며, 균열일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책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정책 구상에 큰 역할을 했고,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분석한 미국 사회의 균열일터는 우리나라 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좋은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회사 테두리 안에 머물던 각종 기능을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용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독립자영업 형태의 특수고용 종사자, 국내하청과 해외하청 그리고 잘 인식조차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 고용 등 다양한 고용 관계들이 경제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1부에서 현대 기업의 기원과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대기업이 고용을 털어버리도록 압박한 변화요인과 이를 가능케 한 기술혁신 그리고 임금 설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균열일터를 가능케 한 대표적인 조직 형태인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을 살펴보고, 각 조직 형태의 고유 매커니즘을 드러내는 사례를 통해 노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3부에서는 균열일터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주요 논점을 현행 규정과 개혁방안 제시에 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불평등한 미국의 균열일터는 이례적인 풍경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게 벌어지는 바위 틈(fissured)처럼 일터도 지난 30년간 균열을 겪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전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는 누적된 현상이다.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기업 비즈니스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시장 확장과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만한 비본질적 활동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밖의 활동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대응책은 여러 조직적·기술적 방법을 활용한 기준 정립과 시행 점검이었다. 저자는 애플, 페덱스, 맥도널드, 월마트 등의 비즈니스 역사를 그 실례로 꼽고 있다. 균열일터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이유는 첫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기준이 침해되며 둘째, 고용관계 해체로 인한 업무상 사고·부상·재해 등 소위 외부효과라 불리는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셋째, 발생된 잉여 수익이 노동자로부터 투자자로 전이되는 분배 불평등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관점은 ‘왜’라는 질문에서 ‘무엇에 대한’ 임금 격차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오너와 자본 소유주들이 독식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며, 대기업 임원보수와 기업 실적의 관계에서 ‘의도된 실적효과’와 ‘숨겨진 자기 거래가 내제된 보수체계’ 속에, 타 직원들에 비해 최고경영진의 소득을 월등히 끌어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 책 곳곳에 제시된 풍부한 자료와 미국 하청업체 그리고 관련 법규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대기업 하청 노동자, 케이블 방송 및 물류센터 독립계약자, 호텔 및 건물 청소 노동자, 각종 프랜차이즈 계약관계, 외주화된 일터의 저임금과 산업재해 문제 등은 요즘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뉴스거리이다. 실효성에 다소 의구심도 있으나 저자의 ‘균열일터’ 개선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고와 고용환경 개선, 공공정책을 통한 압박,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도 언급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책 곳곳에서 언급된 통계자료다.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11.3%)과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정 준수율(3분의 1)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국회도서관 (TEL. 02-788-4124)



금주의 서평 |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